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 SPECIAL EDITION Travel

SINCE 1992 대한민국 NO.1 여행전문 채널 **여행신문**
www.traveltimes.co.kr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일본여행 특집 2018. 6. 4. MONDAY



내마음을
알아봐
일본
JOIN J-ROUTE



이 특집호는 여행신문 홈페이지
www.traveltimes.co.kr에서도
E-paper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TalkTalk 여행기자들의 허심탄회 일본여행	2~3	나의 인생샷, 카가와현에서 만나다	8~9
평범해도 특별한 일상으로 빛나다	4~5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둔 나가사키 명소	10
인터뷰 JNTO 구마노 노부히코 소장	6	하나투어가 준비한 특별 여행상품	11~12
JNTO가 한국인을 사로잡는 방법	7		

마음 채워주는 일본여행 평범해도 특별한 일상으로 빛나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부스스럽고 유별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행은 타인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신의 마음을 채워줄 일본여행을 추천한다. **Travie** 정리=전용원 기자 eon@travietimes.co.kr



마음 1 현지의 삶에 가까이 순도 100%의 소바를 찾아서

나의 여행은 누군가의 일상이다. 현지인의 삶 속으로 가까이 갈 때 여행은 더욱 특별해지겠지! 오사카 시내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사야마시, 사람 사는 냄새 물씬한 조용한 주거 지역이다. 이곳의 소바 집 '아이'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가게에 들어선 순간 일본 가정집에 들어온 것처럼 정겹다. 대표 메뉴는 단연 소바다. 메밀 100%로 만든 소바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루 소바, 소바 위에 튀김을 얹고 쫄음을 부어 먹는 텐푸라 붓가게 소바, 오리 고기를 넣은 따뜻한 쫄유에 면을 담가 먹는 카모소바까지 다양하다. 소바는 밀가루와 메밀의 배합에 따라 면의 식감과 구수함이 달라진다. 아이에서는 메밀 100%로 면을 만드는데, 거뭇한 점이 보이는 게 껌질까지 쓰는 것 같다. 맛을 보니 거친 식감이 오히려 신선하다. 살짝 푹푹하면서도 단단한 것이 메밀발 자체를 입 안에 다 담은 기분이다.



도야마현 미술관 ©여행신문CB

마음 2 예술로 120% 여행 미술관, 놀이터가 되다

놀이 공간으로 미술관이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정소가 아니라 여행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야마현 미술관(TAD)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재미있는 현대미술관이다. 3개 층 5개 전시실로 규모는 작지만 편이면서 현대미술 거장들의 회화 작품부터 포스터, 디자인 가구까지 소장품만 1만 점이 넘는다. 마티스, 샤갈, 피카소, 앤디 워홀, 호안 미로,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격월마다 바뀌는 소장품 전시를 보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다. 분위기 또한 인상적이다. 계단과 2층 복도를 도야마산 삼나무로 감싸 내 집 마루처럼 정감 있고 아늑하다. 아이들에겐 미술관이 동네 놀이터다. 컬렉션 전시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많다. 저녁 무렵 옥상에서 보는 운하의 야경도 눈부시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누야마 거리 ©여행신문CB

마음 3 오래된 새로움 중세 일본의 낭만을 걷다

역사와 전통은 현대와 조화를 이루고 다시 태어날 때 가치를 더한다. 그 오래된 새로움을 만나는 일은 여행자의 특권이다. 예부터 수많은 군용들이 이누야마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썼다. 아이지현의 전략적 요충지였거나 인근 평야의 풍요로움도 컸기 때문이었으리라. 술한 역사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이누야마 성은 여태껏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었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됐다. 주변 마을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이어지는 거리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식당이 앉아 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 싶은 오래된 구멍가게도 '영업 중'이라는 표지를 내걸고 있다.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거니는 이들도, 인력거를 끌며 손님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청년에게도 웃음이 가득하다. 모진 역사를 견뎌 낸 마을은 소박하지만, 오래된 새로움으로 반짝인다.



후쿠오카현 외곽의 공방 겐타가바 ©여행신문CB

마음 4 장인을 만나는 행운 흙도둑의 연금술에 반하다

세월을 머금은 기술은 차라리 예술이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장인의 술결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후쿠오카현 외곽의 호시노야키 공방 겐타가바에 들렀다. 장인 야마모토 겐타 씨가 메이저 이후 맥이 끓었던 호시노 무라의 도자기를 복원해 이어 나가고 있다. 돗토리현에 살던 그는 80년간이나 맥이 끓인 도자기를 찾아내 스스로 계승자가 됐다. 가업을 이어받는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도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역에서 채취한 철과 구리 성분의 유약으로 붙여진 도자기들은 저마다 오묘한 빛과 무늬들을 지니고 있다. 겐타 씨가 찾잔에 녹차를 따르자 마법이 일어났다. 녹차가 반짝반짝 금빛으로 변한 것, 깜짝 놀라 마셔 보니 녹차인 것이 분명하다. 그가 갈고닦은 연금술은 흙을 작품으로, 녹차를 금으로, 한 청년을 장인으로 만들었다. <흙도둑>이라는 책을 냈던 그는 방문객들의 마음도 남김없이 훑쳐 버렸다.



합장가족이 유명한 아이노쿠라 ©여행신문CB

마음 5 일본만의 일본다운 어디에도 없는, 갓쇼즈쿠리

특별함은 희소성에서 비롯된다. 오로지 일본에만 있는 것들만큼 일본다운 게 또 있을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이노쿠라 갓쇼즈쿠리 마을, 200여 년 전부터 지어진 합장가족이 이색적이다. 특유의 뾰족한 지붕 모양이 마치 합장한 손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지붕의 각도를 정삼각형에 가깝게 높이고 두터운 벽새로 덮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주민 50명 남짓인 아이노쿠라에는 200년 전부터 100년 전 사이 지어진 갓쇼즈쿠리 가옥이 15채 남아 있다. 두께가 70cm에 달하는 벽새 지붕은 약 20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다. 집을 짓고 지붕을 이는 모든 과정에는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동참한다. 어렵게 지은 집이어서일까, 집집마다 유스케, 조요몬, 소시치, 산고로처럼 사람 이름으로 부른다.



미야기현 나루코온천의 가이세키 ©여행신문CB

마음 6 현지인도 갈망하는 온천욕 뒤 가이세키 향연

때론 현지 음식에서 여행의 참맛을 느낀다. 온천욕 뒤 먹는 일본 전통요리는 그래서 감동적이다. 미야기현 나루코 온천 마을은 도호쿠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온천 명소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온천을 보통 11종의 수질로 분류하는데, 나루코에서만 9종의 수질을 경험해 볼 수 있단다. 원천만 해도 400여 개에 달한다니, 가히 온천 뷔페라고 불러도 좋을 만하다. 센다이에서 1시간 거리이니, 온천 마니아들이 어찌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나루코 온천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일명 '미인탕'이다. 바깥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의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기도 한다. 다음날까지도 촉촉한 피부는 보습력이 뛰어난 온천의 효능을 그대로 입증해 준다. 온천욕 후에 유키타를 입고 즐기는 가이세키는 힐링 그 자체다. 가이세키는 일본의 전통적인 코스 요리다.



와카이현 산단베키 ©여행신문CB

마음 7 SNS로 자랑하고픈 시간과 자연이 빛을 주상절리

자연이 빛을 절경 앞에서 인간은 할 말을 잃는다.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움에 자랑하고픈 마음이 솟구친다. SNS가 필요하겠지. 산단베키는 높이 50m의 절벽이 2km에 걸쳐 이어지는 주상절리 암벽으로 와카야마를 대표하는 해안 명소다. 시리도록 푸른 바닷물이 암벽에 부딪치면서 하얀 포말로 부서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물결이 보이고, 그보다 가까운 곳에는 속까지 투명한 바닷물이 보여 바람을 쐬기에 이보다 적합한 곳은 없다. 이곳 지하 36m 아래로 형성된 산단베키 해식 동굴도 함께 보면 더욱 좋다. 오랜 세월 거친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내부가 약 200m에 달하는 동굴이다. 천장에는 지층에 묻혀 있다가 다시 드러난 약 1,600만 년 전의 해저 모래와 진흙 무늬가 새겨져 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절로 든다.

마음 8 여행이 된 취미 술 익는 마을, 풍미에 취해

취미는 여행의 좋은 길잡이다. 나만의 여행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양조장 투어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가현 남서쪽 가시마시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부터 술을 빚어 온 유서 깊은 마을 히젠 하마슈쿠가 있다. 거리에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일본 전통식 가옥이 늘어서 있다. 에도시대에는 역참 마을이자, 항구도시로서 기능했다. 이곳에는 일본 사케와 쇼주(일본식 소주)를 만드는 양조장 6개가 있다. 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다. 이곳에서는 마을을 관통해 흐르는 하마가와와 물로 술을 빚어 은은한 단맛이 난다. 일본 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규슈에서도 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술 익는 마을답게 곳곳에 금칠을 하거나 도자기로 만든 큰 술통을 전시해 놓았다. 저마다 지켜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술 익는 마을 히젠 하마슈쿠의 청정함은 풍미 가득한 사케와 쇼주로 설명된다. 그 풍미에 취한다.



도쿄 시부야의 사진집식당 메구타마 ©여행신문CB

마음 9 특별한 보통날 여행자를 유혹하는 서점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동네공인 산책하기처럼 평범한 일상도 여행 중이라면 특별한 경험이 된다. 여행자의 특별한 일상이다. 요즘은 매력적인 책 공간이 여행자를 유혹한다. 도쿄 시부야의 '사진집식당 메구타마'도 그 중 하나다. 겉모습만 보면 열은 갈색의 목조 건물에 들어서면 평범한 식당일 뿐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온통 책으로 빼곡하다. 30년 동안 사진평론가로 활동한 이자와 고타로 씨가 바로 이 사진집들의 주인이다. 그가 마음 맞는 친구 두 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 바로 사진집식당 메구타마다. 점심 메뉴로 전형적인 일본 가정식을 제공하는데, 현미밥은 부드럽고 반찬은 하나하나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 있다. 굳이 사진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일본 가정식을 먹기 위해 방문해도 좋다. 나도 모르게 "밥 한 공기 더 주세요!"를 외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가현 남서쪽 가시마시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부터 술을 빚어 온 유서 깊은 마을 히젠 하마슈쿠가 있다 ©여행신문CB



[인터뷰]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구마노 노부히코 소장

'100인 100색' 입맛대로 떠나는 일본여행의 묘미

2017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714만명.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자 매년 한국인 방문객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본은 올해도 바쁘게 성장하고 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일본의 매력은 어디에 숨어있을까?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구마노 노부히코(Kumano Nobuhiko)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한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신기록 경신 중

714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였지요. 2016년에는 500만명, 당시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 성장세가 완만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기저효과가 있을거란 기대도 물론 있었습니니다. 그럼에도 714만명은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이 크게 늘어났고, TV방송을 통해 일본의 매력이 잘 소개된 것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젊은 층, 부유층, 가족층 등 다양한 타임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적절한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의 입맛에도 딱 맞는 '나만의 일본'

늘어나는 한국인 여행자의 서로 다른 여행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 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인 100색' 콘텐츠 개발은 각자의 니즈에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우리의 전략과 일맥상 통합니다. 사람들은 취미, 취향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는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전달민 기자



구마노 노부히코 소장은 "일본에서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여행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한다면 일본 여행이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심비 중시하는 트렌드 맞춰 콘텐츠 개발 규슈 남부 등 숨겨진 일본 도시 소개 박차 일본 전역에서 즐기는 '골프 여행' 추천해

소비에 아끼지 않아요. 골프나 스키, 등산, 낚시, 피규어 수집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여행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한다면 일본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도시여행, 새롭지 아니할 수가

새로운 일본을 소개하는 일도 많을 수 없지요. 현재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절반은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여행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여행자 만이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제외하곤 다른 지역을 여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꾸준하게 규슈 남쪽, 시코쿠, 주부 지방의 나고야 등 아직 한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 취향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현재 주간 평균 1,100편의 항공편이 한국과 일본 간에 운항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20% 늘어난 것이죠. 새로운 목적지 취향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해 JNTO 차원에서 마츠야마, 미야자키 등 신규 노



선에 취향하는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맞춤, 일본'

올해 일본 여행 캠페인 콘셉트인 '마음맞춤, 일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여행자의 마음을 일본이 맞춰줄 수 있다는 의미죠. 꼭 맞는 모양과 짝을 맞춰야하는 '퍼즐'을 대표 디자인으로 차용해 콘셉트를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특성, 체험 활동, 자연과 미식 등은 여행자의 세대와 여행 타입, 그리고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하게 맞춰지고, 변주될 것입니다.

올해도 '쪽쪽' 긍정적 신호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17년보다 약 20%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1월부터 3월까지 총 213만명, 전년 동기대비 24.4% 늘어났으니까요. 전체 한국인의 출국 수도 전년보다 14.1%가 늘어났으니 올해도 한국의 여행 시장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일본을 찾는 여행자에게 '일본에서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을 꼭 즐기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각 지역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고, 또한 즐길 수 있는 것도 각기 다르답니다.

스포츠 마니아가 추천하는 골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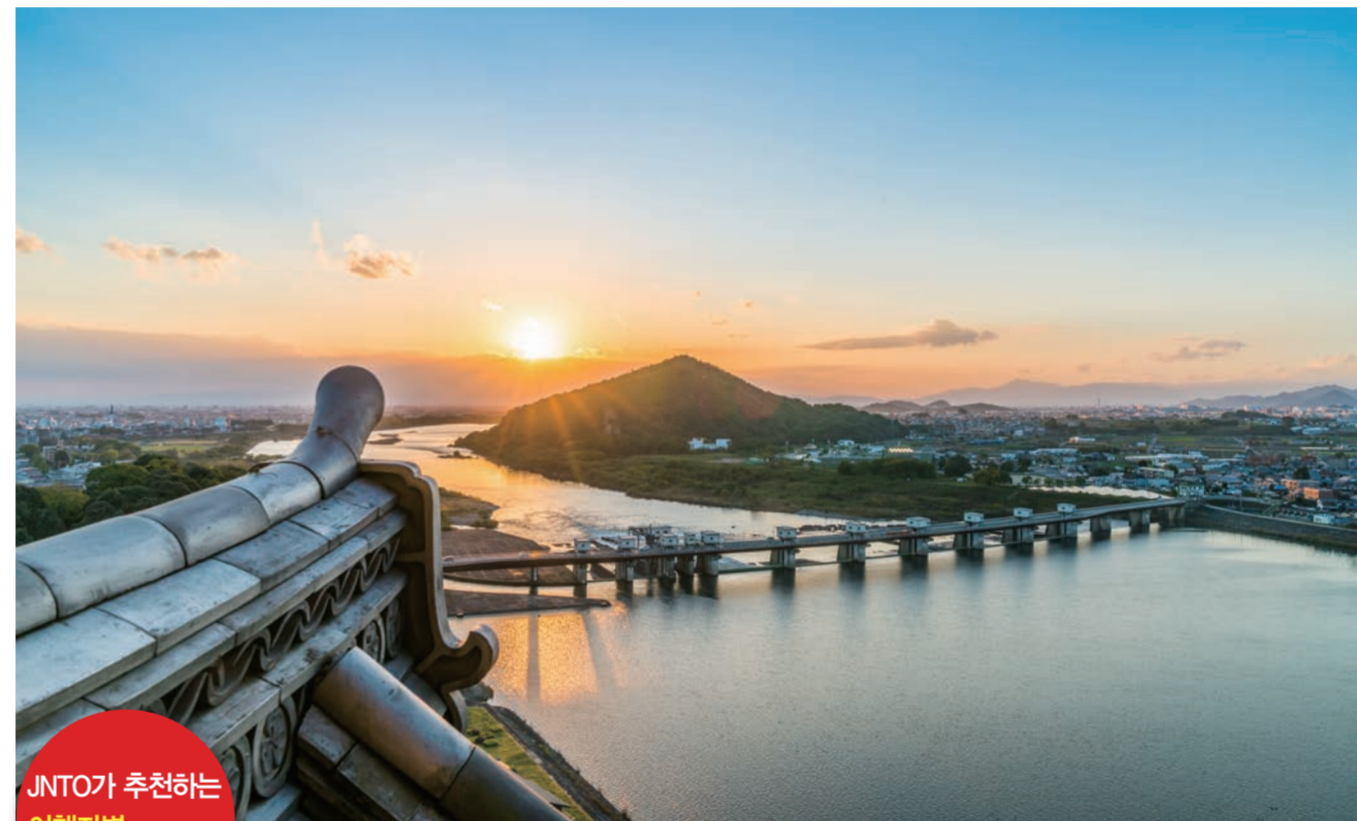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즐겨합니다. 골프도 그중 하나인데, 한국인 여행자에게 일본 골프 여행을 추천하고 싶네요.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에서 한국인 이보미 선수가 우승한 가나가와현 다이하코네CC 등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골프장도 많습니다. 일본은 꼭대기 홋카이도에서부터 남쪽 끝 오키나와까지 골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본 치바현에 있는 골프장 수는 200여곳 정도인데, 한국 전역에 있는 골프장 수와 맞먹는 정도이죠. 그만큼 많은 곳에서 색다른 라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산 등의 스포츠도 함께 즐겨보세요.



일본정부관광국 J-ROUTE 홈페이지 www.jroute.or.kr

JNTO가 한국인을 사로잡는 방법 당신 마음에 더 들어갈 일본여행

올해도 여전히 한국인의 최고 인기 여행지는 일본이다. 1월부터 3월까지 213만명이 일본을 여행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700만명을 넘어 800만명 시대를 맞이한다. 이토록 일본을 찾게 만드는 매력은 무엇일까? 아마도 당신 마음에 맞는 무언가가 일본에 있는 게 아닐까. JNTO는 올 한해도 그 무언가로 당신을 유혹한다. 이성근 기자 sage@traveltimes.co.kr



JNTO가 추천하는 여행자별 맞춤 여행

아이치현 아부타마 성에서 내려다 본 풍경 ©여행신문



일본여행 처음이 아니라면? LCC와 함께 다양한 신도시

일본은 한 번 방문하면 또 찾아가는 재방문자가 많은 여행지로 유명하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대도시에서 벗어나 인근 지방도시나 소도시로 떠나는 것이다. LCC를 활용하면 가고시마, 우베, 시즈오카 등 낯설지만 새로운 일본의 지방을 방문할 수 있다. 일본 여행 고수이거나 일본이 처음이지만 남들과 다른 독특한 여행을 원한다면 대도시에서 벗어나 내 마음 가는대로 떠나는 것도 좋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여행지를 찾는 개척자가 되어보자. 특히 일본의 지방 및 소도시 여행은 일본 고유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현지에 녹아들 수 있고, 정서적 측면에서 일본인과 교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JNTO는 일본 지방 여행이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채워줄 수 있는 콘텐츠를 지닌하고 있다.



여행 일상이 되다 율로의 마음을 잡은 일본

20~30대 청년층의 해외여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방학 때 해외여행 가려고 시간을 쪼개 일한다. 일본은 20~30대 청년의 발걸음을 어떻게 당길까. 우선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여행지 중 하나로, LCC 덕에 해외여행이 가벼워졌다.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운항 스케줄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게다가 혼행(혼자여행)족이 급증하면서 혼밥, 혼술 등이 유행하는데 일본에서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고 혼자서 위한 콘텐츠도 잘 구비가 돼 있다. 또 젊은 여성의 감성을 채워 줄 수 있다. 아끼지 않는 소품이 구비된 소규모 카페와 잘 꾸며진 골목부터 엔터코 등 SNS에서 뽐낼 만한 콘텐츠가 다양하다.



우리 가족의 스물 럭셔리 일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해오는 조금만 달라도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아이가 있거나 연세가 든 부모님과 색다른 여행을 원하지만 거리가 부담된다면 가까운 일본이 제격이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테마파크를, 호도여행이라면 료칸과 편안한 휴식을 추천한다. 일본에서는 숙소, 음식, 쇼핑 등 조금의 비용을 추가해 훨씬 더 나은 가치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 후쿠오카의 유후인, 기타큐슈 등은 합리적인 비용에 세련된 료칸과 감각적인 슌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JNTO는 대중교통 이용이 부담스러운 가족에게 렌터카 여행을 권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본 여행 시 한국인의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렌터카를 활용해 보다 편하고, 구석구석 일본의 속살을 찾아가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취향이 확실한 여행자 천천히, 그렇지만 깊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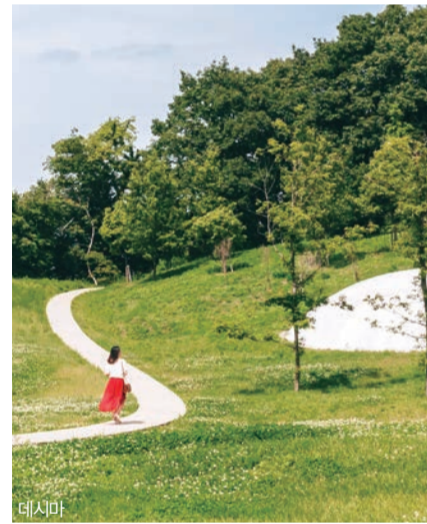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50~60대와 특정 목적이 있는 테마 여행자들에게 일본은 더할 나위 없는 여행지다. 온천과 미식, 일본사계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솔로 라이프 여행과 골프, 등산, 낚시, 민낯, 스쿠버다이빙 등 취미를 깊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즐비하다. 50~60대에게는 고급 료칸과 파인데이닝 등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음미하는 여행 콘텐츠가 적합하다. 특히 교토 아라시야마의 가쓰라 강을 따라 위치한 고급 료칸과 도쿄 긴자 및 오모테산도 일대의 파인데이닝 레스토랑에서 일본의 럭셔리를 체험할 수 있다. 개인 취향이 확고한 여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만든 작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민화와 전자제품을 좋아한다면 도쿄의 아키하바라, 스쿠버다이빙을 원한다면 오키나와가 적합하다.

내 마음을 알아본 일본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하다

JNTO는 올해 '마음맞춤, 일본'이라는 콘셉트로 여행자의 마음을 만족으로 채워줄 계획이다. 사람, 자연, 문화 등 일본관광이 추구하는 가치를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우선 여행자의 일상에 일본 현지를 더한다. 일본 특유의 골목, 시골벽적인 이자카야, 운치있는 노면 전차와 분위기 좋은 카페 등 일본의 일상과 현지인의 생활에 녹아드는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하던 활동이라도 일본에서 체험하면 새롭고, 풍부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트리브 스키지만 츠타야 서점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독서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도 있다. 일본하면 아끼지 않는 것들이 떠오르지만 자연만 큼은 다르다. 도쿄의 후지산, 홋카이도의 맑은 하늘과 라벤더가 펼쳐지는 풍경 등 압도적인 자연에서 인생 샷을 남기고 SNS로 공유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소장할 수 있다. 재택이라면 곳곳에서 펼쳐지는 일루미네이션도 놓치지 말자. 일본의 문화를 느끼며 시간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오사카 나가시마강 주변으로는 근대 건축물과 현대 건물이 공존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게다가 1800년대 건물에서 세련된 브런치도 경험할 수 있다. 도쿄의 스카이트리, 디즈니랜드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은 각 도시의 명소이자 다양한 슌과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가지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면 여기가 딱이다.



치치부기하마 해변



테시마

나의 인생샷, 카가와현에서 만나다

누가 뭐래도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다.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거나 어색하지 않는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카가와현으로 떠날 것.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국적인 풍경 속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해도 좋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타카야 신사



타카야 신사 옆



24개의 농동자 영화마을

인생샷1 일본에도 우유니사막이 있다 치치부기하마 해변

이름만 들어도 살레는 우유니사막. 남미 여행의 하이 라이트이자 버킷리스트로 손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남미 여행이 어디 쉽나. 굳이 지구 반 바퀴를 돌지 않아도 우유니사막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카가와현 서쪽, 치치부기하마 해변에 가면 된다. 진짜 우유니사막은 아니지만 매우 흡사한 느낌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약 1km의 긴 해변으로 원래 석양이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썰물 시간이 오면 갯벌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나는데, 이 웅덩이가 거울처럼 하늘에 반사돼 흡사 우유니사막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치치부기하마 해변에서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인생샷을 얻을 수 있다.



인생샷2 빗자루 타고 '키키'가 되어볼까? 올리브공원

여기가 일본이 맞아 싶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 웅덩이 올리브 나무 끝에 새하얀 풍차가 그림처럼 서 있다. 이번에는 그리스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다. 바로 쇼도시마 여행의 필수코스, 올리브 공원이다. 여기에 세트 우치의 푸른 바다까지 더해져 있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 냈다.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의 촬영지로도 유명해 많은 여행객들이 풍차 앞에서 빗자루를 탄 키키가 되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는 명실공히 쇼도시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게 분명하다. 빗자루는 올리브 기념관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 주변에는 작은 가게가 산재해 있는데 이곳에서 각종 기념품과 올리브유, 올리브드소 등 구매할 수 있다.



인생샷3
섬 전체가 미술관
나오시마

검은 점이 콕콕 박힌 노란 호박과 빨간 호박.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은가? 그렇다.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이자 나오시마섬의 마스코트로 통한다. 나오시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미술의 메카다. 쿠사마 야요이 작품 외에도 마을 곳곳에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창조해 낸 작품들이 숨어있다. 또 골목마다 아가사지키하게 들어선 스텝과 카페까지. 골목을 누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진정한 일본 쇼도시마 여행이 가능한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주목 상품!
하나팩 JMP500
다카마츠·나오시마 3일
항공 및 출발일: 에어서울
매주 일, 월요일(일부날짜 제외)
상품가: 419,200원~ ▶
319,200원~
박람회 현장 예약시 10만원 할인
특전: 나오시마 자유관광, 고토하라공 관광, 무제한 고기뷔페 제공

QR Code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인생샷4
영화 속으로 사뿐히 들어가다
24개의 농동자 영화마을

일본의 국민영화로 불리는 <24개의 농동자> 세트장이 쇼도시마에 있다. 쇼도시마의 섬마을 학교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한 곳이다. 학교부터 작은 신사, 상점들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한 향수를 자아낸다. 목조 교실을 나서 고즈넉한 분위기의 바다를 배경으로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소박한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이곳이 분위기에 맞는 의상으로 간다면 감성이 뚝뚝 묻어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인생샷5
미술관 스타를 받은 정원
리츠린공원

공원도 미술관 스타를 받을 수 있다. '미술관 그린 가이드'에서 말이다. 리츠린공원은 일본의 국가 특별명승지로 지정된 정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미술관 그린 가이드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곳이다. 연못 6개와 푸듯한 산이 조화를 이루는 리츠린공원에서는 초록 길을 걷는 내내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곳에서 새하얀 린넨 원피스가 잘 어울릴 것만 같다. 정원 중앙에 위치한 에도시대 양식의 찻집에서 일본 차와 과자를 곁들인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나가사키에서 개봉박두!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둔 유적지는 어디?

올해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역의 기독교 유산에 주목하자. 이번 여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흘러온 기독교가 17~19세기 동안 어떻게 지켜지고 발전했는지 총 12개 구성 자산에 녹아들어 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금지령에 맞서 싸우리

하라쵸야토

일본 전국적으로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지자 시마바라 반도 남부와 아마쿠사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이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을 일으켰는데, 하라쵸야토는 이 난의 주무대였던 하라쵸의 성터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는 선교사 출입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포르투갈 상선의 입항을 금지시키고 2세기가 넘도록 채국 정책을 펼쳤다.

2세기 동안 지켜온 신념

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 항구와 접한 언덕길에 있는 오우라 천주당은 1864년 일본의 개항 이후 일본을 찾은 선교사가 세운 성당이다. 기독교 금지령으로 몰래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이 무려 2세기만에 선교사와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이 만남은 '신도발견'이라 하며 신자들이 전통 가톨릭으로 복귀하거나 일본의 전통종교와 일반 사회와 공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비밀스럽게 지켜온 기독교

구로시마 마을

표면적으로는 불교 사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몰래 '마리아 관음'에 기도하는 등 비밀스럽게 신앙 생활이 이어져 온 마을이다. 19세기 중반 목장 재개발 명으로 이주를 강요하면서 전국의 신자들이 구로시마에 모이게 되고, 기독교 금지령 아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행해졌다. 금지령 해제 이후에는 전통 가톨릭으로 복귀해 성 중심부에 성당을 세웠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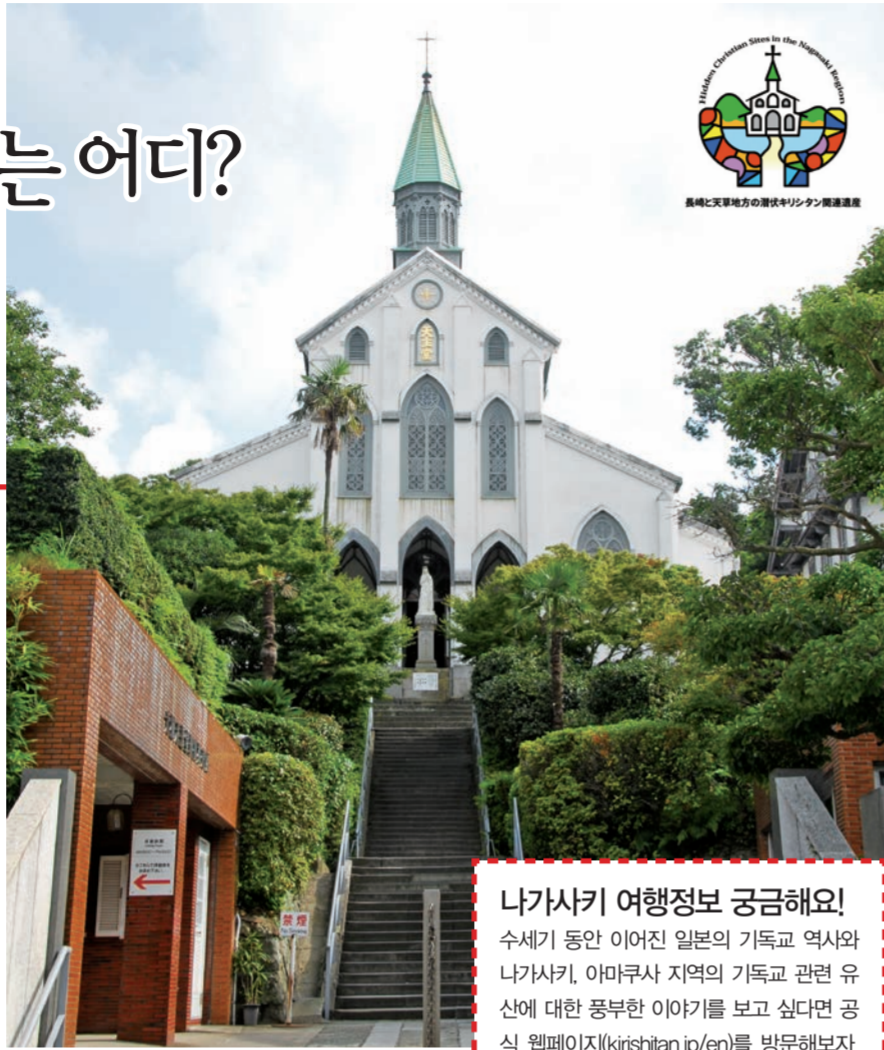
노자키시마의 마을 유적

기독교 신자들이 19세기 이후 일본 민족 신앙인 신도 성지로 이주해 몰래 신앙을 지켜온 곳이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노자키시마 중심부, 남부 등 2개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어 민족 신앙인 신도를 믿는 것처럼 꾸며 기독교 금지령을 피했다. 금지령이 풀린 이후에는 2개 마을에 각각 성당을 세우고 평화로운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



고난 끝에 빛이 있으리 가시라가시마 마을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지도자의 지휘 아래 무인도였던 가시라가시마에 터를 잡았다. '신도 발견' 이후에는 섬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지도자의 집을 '임시 성당'으로 쓰기도 했다고, 기독교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임시 성당 근처에 성당을 세웠다.



나가사키 여행정보 궁금해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나가사키, 아마쿠사 지역의 기독교 관련 유산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공식 웹페이지(kirishitan.jp/en)를 방문해보자. 인포메이션 센터 웹페이지(kyoukaigun.jp/kr)에서도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가사키현 전반에 대한 여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gasaki-one)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agasaki_one), 그리고 나가사키현 웹페이지(www.nagasaki-tabi.com/home)를 방문하면 된다.



토착 종교와 기독교의 만남

히라도 성자와 마을

기독교 이전, 산을 숭배했고 동시에 기독교 금지령 기간 동안에는 이전부터 숭배해왔던 야스만다게에 가톨릭 신앙을 반영해 숭배해온 마을,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금지령 초기에 가톨릭 신자들을 처형했던 나카에 노시마를 순교지로 성지화하기도 했다.



에어서울 타고 나가사키로 승

나가사키를 가는 가장 편리한 길은? 에어서울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것. 현재 에어서울이 인천-나가사키 노선에 주3회(화·금·일요일) 취항하고 있다.

주목 이 상품!

하나투어 JKP505
규슈·나가사키 3일
항공 및 출발일: 에어서울
매주 금·일요일
상품가: **568,200원**~
호텔: 헨나호텔, 나가사키스카이호텔
특전: 나가사키짬뽕, 원목 자료관, 평화공원 관광, 하우스텐보스 1DAY 프리패스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현장에서 구매하세요! 놀라운 특가와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전용 하나팩 상품

일본관 공통특전



일본관 현장 예약 시 ▶ 일본 명물 간식 '화과자' 증정

※인선 출발 일본 패키지 상품 한정 (선박/하루/플라잉베베 상품 제외), 여행 중 현지 증정(객실당 1세트)

일본관 현장 예약 시 ▶ 숙박권 or 워터볼 or 멀티어댑터 중 1개 증정

※여행상품 현장예약 후 설문조사 완료조건
※ 인선 출발 일본 패키지/어플 상품 예약자 한정

소박한 매력의 일본 소도시 BEST

하나투어 JNP500
549,000원 ~ ▶ **499,000원**~

미야자키·가고시마 3일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5만원 할인

- ① 매주 화, 목
- ② 이스타항공
- ③ 호텔 웰브먼트, 메리쥬 호텔
- ④ 미야자키(1)-가고시마-가고시마(1)-미야자키
- ⑤ 특급 스고기 미야자키큐 제공, 전통 미야자키 온천물 체험, 모이이 석상 선 넷세 나치나 관광

하나투어 JDP500
700,800원 ~ ▶ **600,800원**~

아오모리 3일 자유일정

가이드+기사경비 불포함, 선택경비 ▶ 있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0만원 할인

- ① 매주 수
- ② 대한항공
- ③ 에델랜드
- ④ 아오모리-히로사키(2)-아오모리
- ⑤ 석식 1회 기아세키 특식 업그레이드, 아오모리 특산물 시과 증정

하나투어 JTP500
922,600원 ~ ▶ **522,600원**~

도쿄·하코네·시즈오카 3일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하나투어 단독체험 포함

- ① 매주 목, 토
- ② 에어서울
- ③ 신바시 아타고야마 도큐 레이, 칸에 호텔 시즈오카 시마다
- ④ 시즈오카-도쿄(1)-하코네-시즈오카(1)
- ⑤ 명품 관광지 하코네 관광 포함, 후지산 전망 호텔 온천물 가능

하나투어 JAP510
1,139,000원 ~ ▶ **999,000원**~

나고야·다카야마·게로 4일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4만원 할인

- ① 매일
- ② 대한항공
- ③ 유카이 리조트 게로 사이호리쿠 별관, 야쿠시노유 별관, 나고야 사카이 도큐 레이
- ④ 나고야-게로(1)-사카이와고-신호타카-오쿠하(1)-카미코자-다카야마-나고야(1)
- ⑤ 신호타카 로프웨이 탑승, 일본 3대 명천 게로 온천체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 합정촌 관광, 카미코지 관광



하나투어 JYP500
599,200원 ~ ▶ **499,200원**~

돗토리·마츠에 3일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0만원 할인

- ① 매주 일
- ② 에어서울
- ③ 사카이미나토 온다도 노노, 도쿄엔
- ④ 요나고-마츠에-사카이미나토(1)-돗토리-가이게(1)-사카이미나토-요나고
- ⑤ 가이게 바다온천 체험, 마츠에 말차 체험

하나투어 JAP510
1,269,000원 ~ ▶ **1,099,000원**~

알펜루트·나고야 4일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7만원 할인

- ① 매일
- ② 아시아나항공
- ③ 유카이 리조트 게로 사이호리쿠 별관, 우나즈키 그랜드, 카리야스
- ④ 나고야-게로(1)-사카이와고-다카야마-신호타카-도야마(1)-알펜루트-오오마치(1)-나고야
- ⑤ 일본 3대 명천 게로 온천 숙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 합정촌 관광

6월 추천여행지 홋카이도 BEST

하나투어 JSP510
921,000원 ~ ▶ **821,000원**~

홋카이도·사코탄 4일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0만원 할인

- ① 매일
- ② 진에어
- ③ 만세이카쿠, 더 그린리프 니세코 빌리지, 도큐스테이 삿포로
- ④ 치토세-노보리베츠(1)-도야-니세코(1)-사코탄-오타루-삿포로(1)-치토세
- ⑤ 삿포로 대게요리 무제한 제공, 3대 유황온천 노보리베츠 온천체험, 100대 해안절경 사코탄 관광

하나투어 JSP510
1,279,800원 ~ ▶ **1,129,800원**~

홋카이도 4일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 없음
여행박람회 기간 예약 시 15만원 할인

- ① 매일
- ② 아시아나항공
- ③ 프리미어 호텔 츠바키, 모리노 소라니와, 다이이치 다카모토칸
- ④ 치토세-삿포로(1)-오타루-가타우치와(1)-도야-노보리베츠(1)-삿포로-치토세
- ⑤ 삿포로 시내 특급호텔 숙박, 쇼핑템 제공, 게이오리 특식 제공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현장에서 구매하세요!

놀라운 특가와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전용 하나 **Free** 상품

JSA511

519,000원~
홋카이도 자유여행 4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있음
아사히카와 시내호텔 1박 포함

- ① 매일
- ② 티웨이항공
- ③ 후지타 관광 워싱턴
- ④ 아사히카와(3)

JTA501

389,000원~ ▶ 359,000원~
도쿄 자유여행 3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있음
박람회 현장 예약시 3만원 할인

- ① 매일
- ② 진에어
- ③ 프리미어 캐빈 신주쿠
- ④ 도쿄(2)



JWA501

619,000원~ ▶ 519,000원~
오키나와 자유여행 3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있음
박람회 현장 예약시 10만원 할인

- ① 매주 수,금
- ② 티웨이항공
- ③ 몬토레 리조트 오키나와
- ④ 오키나와(2)

JMA500

197,000원~
다카마츠 자유여행 3일

현지지불▶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있음
카가와 가이드북 증정

- ① 매주 일,월,금
- ② 에어서울
- ③ 다이와 로이넷 다카마츠
- ④ 다카마츠(2)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일본관 이벤트**

- **일본 패키지/에어텔 현장 결제자 한정 이벤트**
설문조사 참여시 추첨을 통해 숙박권 or 워터보틀 or 여행용 멀티어댑터를 드립니다~
- **OX퀴즈대전!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퀴즈를 맞혀라~**
일본여행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풀고 선물까지 받아보세요!
- **오키나와 전통음료 & 사케 시음 행사**
일본관 무대에서 신나는 에이사 민속공연까지 보고가세요~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휠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